

# 美 금리인상 속도조절 소식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코스피 7.17p 올라 2479.99 마감  
코스닥 지수도 11.73p 오른 741.34  
“파월 연설에 주식시장 혼풍 작용”

제품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가운데 국내 증시도 화답하면서 장을 마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17포인트(0.30%) 오른 2479.99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73포인트(1.61%) 오르면서 741.34에 마감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혼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이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여전히 금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72.53)보다 28.90포인트(1.17%) 상승한 2501.43,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29.54)보다 11.43포인트(1.57%) 오른 740.97에 거래를 시작했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아이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대신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택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돌입 전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다”며 “연설 전부터 잭슨홀 연설 때만큼의 대파적 발

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컸던 만큼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에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에서 파월 의장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수가 일제히 치솟았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4.41% 급등하면서 4거래일 만에 급등했다. 더불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

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각각 3.09%, 2.18%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파월의 언급과 더불어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역시 향후 국내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 발언에 힘 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등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미 레이몬드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경제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미중 갈등 완화로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 가능성이 있지만,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월의 발언은 시장의 단기 랠리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12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연준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속도조절에서 최종금리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FOMC 전후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위험관리에 할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배당의 계절... 기업은행 등 금융주 ‘눈독’

투자자들 ‘고배당주’에 관심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연말 결산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배당주에서는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금융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투자자들이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일(폐장일 이틀 전)’ 하루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는 12월 27일까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10월 말 대비 9.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7.8% 상승한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들의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코스피 상장 종목 중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을 모아둔 지수다. 고배당50 지수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형주를 비롯해 금융주와 증권, 보험 등 금융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융주 비중이 55%에 달한다.

KB증권은 금융주와 비금융주를 각각 고려해서 배당주를 선택하라고 조언

했다. 배당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주는 배당 성향을, 비금융주는 주당배당금(DPS)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금융주는 이익과 배당 성향을 낮게 감안해도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고, 비금융주는 DPS를 줄인 전력 이 적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주는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더 하겠다’, 비금융주는 ‘실적이 안 좋아도 꾸준히 배당하겠다’의 입장을 갖고 배당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종목으로는 금융주에서 기업은행(예상배당수익률 7.7%), 삼성카드(7.7%), 삼성화재(6.3%), BNK금융지주(8.3%), 우리금융지주(7.6%)를, 비금융주에서 LX인터내셔널(7.1%), HD현대(5.7%), KT(5.6%), GS건설(5.5%), 영원무역홀딩스(5.4%) 등을 꼽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배당주에 투자했을 경우 내년 1월 효과(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기대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 관점에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유효하지만 시세 차이

관점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왜냐하면 배당락 이후 한달 동안 코스닥 수익률이 1월 효과 덕분에 우상향하는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의 배당 제도 변경 추진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당금 규모를 우선 결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 후 투자가 가능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1개월 정도 단축된 시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투자자 유입을 위해 배당금 규모를 늘려야 하므로 배당 수익도 높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록 지난해 코스피 배당 성향은 35.41% 수준으로 직전 해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 몇년간 보여온 배당 성향의 증가 트렌드가 배당주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배당 제도 변경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배당주 투자 환경이 개선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새 해외주식 서비스로 서학개미 잡는다

NH증권 ‘해외주식 리테일 대어플’  
유안타증권, 美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증권사들의 올 3분기 연결기준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잡기 위해 새로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 3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45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의 거래대금 감소로 수수료 이익이 급감하는 반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서학개미를 잡기 위한 특화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리테일 대어플 서비스’를 실시했다. 리테일 대어플 서비스는



개인·법인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주식 대어플에 대한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어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체결 내역 확인 및 대어 기간에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증자와 배당 등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8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재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권을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IPO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IPO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원관희 기자 wkh@

## 자본시장 규제위반 제재조치 대상자 공개

금융위, 불공정 거래 예방일환 실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모·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금융위·증권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증권위 제재의 결정(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의무 위반, 공모도규제 위반 등) 규제 위반자는 의결 후 2개월 내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예탁결제원, 외국인 국채투자 쉬워진다

내년 ‘국채통합계좌시스템’ 개시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채통합계좌시스템’이 개시되면서 외국인 투자등록(IRC)과 대리인 선임, 국내 계좌 개설 등 절차가 생략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

예탁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